제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일시 1957년2월26일(단기4290년)(화) 상오10시20분

식 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식사(의장)
4. 인사(시장)
5. 만세삼창
6. 폐회

(10시 20분 개의)

○간사장 신용석; 지금부터 제8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읍니다.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배례와 애국가봉창이 있었음)

다음은 의장님의 식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의장 김진용; 오늘 제8회 임시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 잠깐 간단히 인사말씀을 들이겠읍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 임시회의는 회계검사 또는 각도시의장단회의 개최에 대한건이 주장된 건일것입니다. 그밖에 다른 여러가지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것같습니다만은 이 두가지가 주장된 일일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의회가 시작된지 반년을 지났지만 또 이번에 시작할 회계검사라는것은 또 처음일것입니다.

역에 대해서 서울시 사림을 맡어가지고 보는 우리로서는 금전에 관계되는 회계를 분명히 잘해보라는 것은 우리의 책

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회계검사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이 아니고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이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여러분께서 일반사회관계라든지 기타의 심계원 관례라든지 여러가지를 참작하셔서 漏屢없이 성실하게 해주실 절차를 역시 이번에 마련해야 될줄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각도 의장단회의에 대해서 물론 우리서울시로서 40여명되는 도시의장단을 초청하니만큼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빈주의 예를 분명히 해야 될것입니다.

물론 회의자체가 자치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모인만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많이 연구하시고 생각하시는바 있으시겠읍니다만은 이런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누루가 없이 되도록 잘 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우리도 반년동안이나 의회생활에 중심이 되어서 연마되고 한만큼 무슨 문제든지 문제가 나오면 좀 진지한 태도로 충분히 연구하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진실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주도록 노력해줄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이말씀으로 식사에 대하겠읍니다.

○간사장 신용석;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시장 고재봉; 금반 제8회임시회의개회에 임하여 몇마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과반 시행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기4290년도 예산을 심의결정하여 주시여 이미 정하여진 원칙과 계획밑에서 명랑한 영위기 가운데에서 건실한 시정운영이 착착진행하고 있음은 오직 의원여러분의 편달

아래에서 집행부로서의 기술을 가일층 발휘하여 공공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게끔 하여주신 소치로 생각하여 경하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를 받고저하는 몇가지 조건중에는 의원여러분이 이미 심의결정하여 주신 근본원칙에 대한 반영이 다분히 있으리라고 사료되며 더욱이 의원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진격하신 심의로서 유종의 성과를 맺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에 대하고저합니다.

단기4290년2월26일

서울특별시장 고재봉

○간사장 신용석; 다음은 만세삼창을 부의장께서 선창해주시겠읍니다.

(부의장 선창으로 대한민국만세를 삼창함)

이상으로서 제8회임시회의 개회식을 끝맡기로 하겠읍니다.

(10시 30분 폐식)